

깨어나는 500년 역사, 강진 전라병영성축제 17일 팡파르

전통과 체험, 액션이 어우러진 '전라병영성'으로 초대 성내 휴식 공간 '연희당' 새로 정비 사진명소로 기대 축제 하이라이트 병마절도사 입성식 퍼레이드 볼 만

조선시대 전라도 육군 총지휘부였던 전라병영성의 역사와 호국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29회 전라병영성축제'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강진군 병영면 전라병영성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역사가 살아있는, 전라병영 액션파크'를 주제로, 전통과 현대, 체험과 공연이 결합된 참여형 역사문화축제로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단순히 공연을 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몸으로 느끼는 프로그램이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큰 호응이 예상된다.

축제장 전체를 하나의 '역사 놀이터'처럼 만들어 누구나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전라병영성의 역사와 호국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면서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올해 새롭게 주목받는 공간은 성내에

위치한 '연희당'이다. 조선시대 성내의 휴식 장소이자 연희장으로서 역할을 했던 연희당은 전라병영성 복원정비사업을 통해 새롭게 모습을 갖췄다. 연희당에서 바라보는 성내 전경은 뛰어난 경관으로 사진 명소로 주목받고 있어 축제 기간 많은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희당에서는 차 시음회와 즉석 사진 인화, 스탬프존, 보물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18일 오후에 시작되는 '병영성 입성식 퍼레이드'다. 병마절도사가 말을 타고 입성하는 장면과 취타대와 가수들이 행렬을 이루며 이동하는 모습은 마치 조선시대로 시간여행을 온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퍼레이드 이후에는 전통 타악 공연, 미스트롯4 진이소나, 선 허찬미 등 트로트 가수들이 참여하는 개막공연이 이어지며, 축제의 열기를 끌어올린다.

다른 무대 프로그램 또한 풍성하다. 토요일에는 강진의 역사와 인물을 현대적



으로 풀어내어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는 '조선을 만난 시간' 공연과 역사 스토리텔러 선진이 들려주는 '병영 역사 이야기', 축제 마지막 날에는 어린이를 위한 심어콩소 '캐리와 친구들' 공연과 풍물놀이 한마당이 준비돼 있다.

체험 프로그램은 더욱 다양해졌다. 활쏘기 리그, 팀을 나눠 겨루는 페인트탄 서바이벌 게임, 말 위에서 펼쳐지는 마상무예 공연과 체험 등 다른 축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통과 놀이가 어우러진 미션형 프로그램 '병영성 게임 시즌2'가 무대에서 운영된다. 전라병

영성 일대를 따라 걸으며 스탬프도 모으고 미션도 수행해 소정의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전라병영성 한바퀴' 프로그램도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성곽 위를 걸으며 이야기를 듣는 '성곽 밟기', 직접 성을 쌓아보는 '성곽 쌓기', 조선시대 의복을 입어보는 프로그램 등은 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역사 공부가 되고, 어른들에게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된다. 이 밖에도 전통 공예 만들기, 무기 제작 체험, 떡매치기, 군번줄 만들기 등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운영된다. 강진/손경설 기자



도요새-농게가 깨운 봄, 순천만 4월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자연을 오감으로 느끼는 참여형 프로그램 마련

순천시와 순천만의 4월 대표 생물인 도요새와 농게를 주제로 생태체험 프로그램 '순천만, 봄을 만나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생태치유, 생태해설, 별빛체험, 문화체험 4개 분야로 구성되며, 순천만의 봄 생태를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참여형 콘텐츠로 마련됐다.

특히 4월 대표 생물인 도요새를 만날 수 있는 1만km 이상 이동하는 대표적 나그네새다. 봄철 순천만은 뉴질랜드 등 남반구에서 북반구 반식지로 이동하는 이들이 장거리 비행 중 에너지를 보충하고 휴식하는 중요한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한다.

또 다른 대표 생물인 농게는 갯벌을 활발히 오가며 봄철 생명의 활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저서생물로, 참가자들은 갈대숲과 갯벌 탐방을 통해 다양한 생명체의 움직임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도요새를

현장에서 찾아보는 '순천만 조류 탐험 (1만2천 킬로미터의 여행)', ▲탐조와 명상을 결합한 '순천만 힐링 탐조(순천만 생명의 소리)', ▲갈대숲탐방로를 따라 갯벌을 탐험하는 '갈대숲 갯벌 탐험(겨울잠에서 깬 갯벌 생명들)' 등 생태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한, ▲순천만 동행 해설 ▲꿀떡 세워 내 별 찾기 ▲갈대 '복' 빗자루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됐다.

참가자들에게는 순천만의 101가지 생물을 담은 미니도감을 제공하며, 순천만역사관에서는 갈대 등 자연재료를 활용한 염색 만들기 체험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순천만의 4월은 긴 여행 중인 지구의 순례자 도요새와 갯벌에서 활발히 움직이는 농게를 함께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기"라며 "많은 분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봄의 생명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진도군과 부천시가 자매도시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 '축구동호회 친선 교류 행사'에서 고향사랑기부금 300만 원을 상호 기부하며, 양 지자체 간의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했다.

최근 진도군 축구동호회는 부천시를 방문해 축구동호회 간 친선 교류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교류는 동호회 활동을 통해 자매도시 간의 문화, 체육, 취미 분야에 대

진도군-부천시, 축구동호회 친선 교류로 상생 협력 강화

고향사랑기부금 300만 원 상호 기부, 진도군 특산품 홍보 병행

한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 간의 상생 발전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행사로는 축구동호회 간 친선경기, 부천시 주요 시설에 대한 견학, 양 지

자체 간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식이 진행됐다.

한편, 부천시청 1층에서는 진도군 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행사가 열려 방문객들의 큰 관심을 끌었으며, 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행사도 함께 진행해 진도군의 답례품과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자매도시 간 체육 교류를 통해 상호 유대감을 높이고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 특산품 홍보까지 연계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며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오재명 기자

장성군이 7일 호남지방데이터청과 '지역특화통계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다문화·외국인 가구 통계 개발 및 데이터 분석 △관련 통계 업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2025년부터 호남청과 협력해 지역특화

장성군, 군 단위 최초 '다문화·외국인 가구 통계' 개발 착수

호남지방데이터청과 업무 협약... 데이터 분석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통계 개발을 위한 사전 논의를 진행해 온 장성군은 꾸준히 증가하는 다문화·외국인 가구에 주목해 전국 군 단위 최초로 '다문화·외국인 가구 통계' 개발을 확정했다.

이번 통계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각종 자료들을 연계·가공해 작성하는 '행정통계' 방식으로 추진된다. 군은 정책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지표를 선별하고,

다문화·외국인 가구의 전반적인 생활 실태를 다각도로 분석할 방침이다.

심우정 장성부군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다문화·외국인 가구의 융화와 안정적인 정착이 필수"라며 "구축된 통계를 바탕으로 세밀한 지원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영암군이 농기계 운반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임대농기계 운송 서비스를 4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화물차량이 없는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농기계임대사업소 덕진본점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운송 대상은 농용굴삭기, 보행

영암군, 농기계 '집 앞까지...' 운송 서비스 시범 운영

고령·귀농·여성농업인 우선 지원... 영농 현장 편의 높여

관리기, 승용예초기 등 자체 동력이 있는 기종 약 10종으로, 예약 후 사용일에 맞춰 지정 장소까지 운송하고 반납 회수가

특히 영암군은 고령농업인과 귀농·창

업농업인, 여성농업인을 우선 지원해 농기계 이용의 문턱을 낮추고,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정 영암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운송서비스 도입으로 농기계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농업 기계화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화순군, 4월~5월은 등검은말벌 방제 최적기

봄철 등검은말벌 여왕벌 선제 포획으로 가을철 피해 예방 기대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9일 월동에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한 등검은말벌 여왕벌의 방제 최적기인 4-5월을 맞아 양봉농가의 적극적인 방제를 당부했다.

등검은말벌 여왕벌은 겨울을 난 뒤 3월 하순부터 5월까지 단독으로 먹이 활동을 하며 새로운 벌집을 만들고 군집 형성을 준비한다. 이 시기에 방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9-10월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나 벌통 피해가 커질 수 있다.

특히 피해를 입은 벌통은 회생이 어렵거나 세력이 약해져 월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양봉농가에 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양봉장 주

변과 인근 야산에 유인덫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유인제를 보충해 여왕벌을 집중적으로 포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이 트랩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페트병 상단을 잘라 거꾸로 끼워 제작할 수 있다. 유인제는 벌집용액과 설탕, 막걸리를 50:20:30 비율로 혼합해 사용하고, 주 1~2회 보충하는 것이 좋다.

최은순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따뜻한 날씨로 등검은말벌의 활동 시기가 빨라지고 활동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라며, "봄철 선제적 방제를 통해 가을철 말벌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양봉농가의 각별한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화순/김종환 기자

